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6월 14일 목요일 중예배실에서 150여명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연합수련회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제1여전도회부터 제6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유기영 목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는 ‘여전도회 회원’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을 꿈꾸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부족한 역량들 기도 하며 여전도회 회원들로 부끄럽지 않는 삶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부에서는 전국 여전도회 이연옥 명예 회장의 “건강한 공동체”라는 특강을 통해 그동안 여전도회가 이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중한 사역들을 전하며 여러 감동들은 섬김과 나눔에서 물질만이 아닌 눈물로 세상에 줄 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권면의 말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3부에서는 나라와 교회 여전도회의 활성화와 투병 중인 회원들의 쾌유를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신형섭 기자>



갇힌 자를 돌아보고... _ 여주 소망 교도소를 다녀와서



도시는 여름으로 치닫고 있고 깊은 숲은 아직 서늘하다. 6월 17일 무더운 주일 오후에 여주에 있는 소망 교도소를 다녀왔다. 초록의 향기에도 심호흡을 하며 함께 호흡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사람 사랑에 흠뻑 빠진 우리들, 어찌 사랑 아니 하리... 높은 교도소담 뒤에 있는 수용자들과 함께 하는 찬양, 아~~~~~갇다!!! 깊고.. 깊어서.... 그저, 긴~~~~호흡만, 그리고, 그 깊은 속에 평온함을 느낀다. 미시오 데이(Missio Dei) 선교찬양대와 교정사역팀 등 50여명은 소망교도소 강당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후 ‘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와 ‘사랑으로’, ‘항수’ 등, 가곡과 성가들을 선교찬양대가 합창을 할 때 조용히 경청 하는 모습 너무 은혜로웠다. 격리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수용자 한명 한명의 지체들 지금은 우둔하고 미련한 양이지만 함께한 우리들은 그들에게 절망이 소망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길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두려움이 기쁨 되고 지친 생명 회복되어 하늘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합심 기도했다. 수용자들 모두가 만기 출소하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귀한 책임 받기를 바라며 우리들 모두가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기를 소망해 보았다. (소망 교도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들을 변화시키고자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세운 민영교도소입니다. 수용자들의 내적 변화를 위하여 모든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기도로 섬기고 있으며 수용자 개개인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300여명의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신형섭 기자>

“섬기는 자가 되라” _ 2012년 피택자 수련회에서

2012년 피택자 수련회가 6월 15일과 16일에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렸다. 피택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여러 과정의 교육과 여러 사역들에 참여를 하였다. 주차안내와 주방과 교육부서등에서 6개월 동안 봉사도 하며 교회구석 구석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와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오후 6시부터 찬양과 경배에 이은 ‘여는 예배’로 수련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온전히 우리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귀한 예배로 드렸으며 피택자 교육 담당 이강찬 목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귀한 임직자가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지켜 충성된 종이 되어 위기가 힘들 때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의 폭을 넓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靈)으로 가득찬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였다. 이어진 담임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교회 비전과 피택자들에게 바라는 교회에 사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조별 나눔 시간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피택자 교육과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임직 후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개인적인 결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5분의 장로 피택자와 19분의 안수집사 피택자와 20분의 권사 피택자들은 6월 24일 창립 24주년 기념예배에서 각각 안수를 받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는 귀한 임직식을 가진다. <신형섭 기자>



* 성경 _ 한자로 풀어보기

降臨(강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16)

降臨(강림)의 辭典的 意味(사전적 의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옴

降臨(강림)의 聖經的 意味(성경적 의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심(descend from Heaven).

특히 舊約(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으로 하나님자신을 啓示(계시)하시고 인간을 살피시며 또 이 땅에 복과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것으로 소개된다. 新約(신약)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오심 및 再

臨(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降臨(강림)의 文字的 意味(문자적 의미)

★降(내릴 강. 항복할 항) : “언덕이나 얇은 산”을 뜻하는 阜(언덕 부)의 변형체 阝(좌부 방)에 “무질서”를 뜻하는 舛(어그러질 천)의 변형체를 합쳐 “패잔병이 언덕에서 어기적거리며 내려와 항복 한다”는 의미를 만들었다.

★臨(임할 림) : “엎드리다. 눕다”의 의미가 있는 臥(엎드릴 와. 누울 와)에 “물건. 등급. 무리. 평가하다”의 뜻을 지닌 品(물건 품. 품수 품)을 결합시켜 “엎드려 물건을 살피고 평가할 때 시선이 아래로 임한다”는 뜻이 되었다.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

_ 삼상 7 : 12

통권 제 305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2년 6월 24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받으셨사오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주님 손에 올려 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작았기에 기대함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바쳐야함을 알았기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도 몰랐습니다.
받으시면서 화를 낼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버려질지 모른다는 염려도 찾아왔습니다.

막상 받으시는 그 순간,
첫 손길 모두의 소망이 모아짐을 느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받으셨사오니 살려 주옵소서.
받으셨사오니 지켜주옵소서.
받으셨사오니 자라게 하옵소서!

다지고 또 다졌던,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스물 네 해를 맞았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신 은총에 책임있게 응답할 것입니다.

드린 물고기와 떡 덩어리가 모두를 충만케 하셨듯,
당번 광야를 나눔과 섬김으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더욱 힘 있게 잡음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며,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존귀케 할 것이며,
풍성함과 나눔으로 축복이 힘차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주여,
더욱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식탁에 찾아오십니다. 육의 양식만이 아닌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끄심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온전해 질수록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4년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고 만진 기억

들로 가득합니다. 비록 저는 5년여의 목회기간을 통해 한 부분을 함께 했지만, 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24년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어져갈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저의 발자취도 묻혀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섬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어찌 이 고백이 목회자의 섬김만으로 제한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손길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고백이 깊어집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또한 교회 내의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은 깊은 감명으로 제 가슴을 울립니다.

다 말할 수도 없고, 간단히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함을 노래로 고백합니다.

_ 창립 24주년을 감사하며 ... 박원호 목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고백

어느덧 창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삶의 햇수가 더할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월의 가치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에 있습니다. 2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른다면 그 세월에 담긴 가치는 몇 마디의 말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지난 24년의 세월은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요! 주님 안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교회의 식구들과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진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라 명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라는

주간 목회력

<교회창립기념 초청 오르간연주회>
-6.24(주일) 오후4시 / 본당
<킹덤비전영여캠프 봉사자모집>
-보조교사,간호사,사무보조,주방 등

<겨자씨모임종강>
-6.27(수) 인도자모임 없습니다.
<사역팀장 전체모임 공고>
-7.1(주일) 오후3시 / 밀알실(3층)

<청년부 여름사역을 위한 바자회>
-7.1(주일)1~3부 / 1층로비, 운동장
-Car window wash, 발마사지, 냉음료

24년 자란 믿음의 나무

교회 창립과 섬김의 약속

1988년 6월 26일, 주님의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18절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뜻'에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교회'로 붙였습니다. 첫 예배 전인 1988년 2월, 이재철 전도사와 다섯 가정이 성경공부를 시작하며 교회 창립을 고민하고, 6월 23일 교회 창립 준비 기도회에서 헌금의 50%이상을 대외선교와 구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재정의 50% 이하로 교회 살림을 하겠다는 내핍과 검약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건물을 따로 소유하지 않고 공공건물의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본질성의 회복 강조한 이재철 목사의 10년

이재철 목사는 '본질성의 회복'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교회의 주인의 회복, 교회 헌금의 회복, 교회 본질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당회에서 1991년 1월 6일에는 예배 중에 헌금하지 않고, 봉투에 헌금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1년 10월에는 시무자로 임기제를, 1992년 1월에는 교역자 임기제를, 1996년에는 담임목사 임기를 10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98년 6월 21일, 이재철 목사가 10년 시무를 마치고 이임했습니다.

건강한 영성의 회복 위한 목회, 임영수 목사

1998년 6월 28일, 제2대 임영수 목사가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주님의교회를 섬겼습니다. 임영수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전제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친교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2대 임영수 목사는 2002년 8월 30일 사임했습니다.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문동학 목사

2003년 1월 1일, 제3대 문동학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문동학 목사는 '크리스천의 대안의 공동체 건설'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로움의 사역'을 가치로 삼고, 사회와 불신자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문동학 목사는 2006년 9월 12일 사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박원호 목사

2007년 6월 17일, 제4대 담임목사 박원호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비전으로 채택하고, 선교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처럼 뿌리 내리는 번식교회들

주님의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1일, 첫 번째 번식교회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동화중고등학교에서 이인호 목사가 담임하는 길가에교회의 창립예배를 올렸습니다. 2011년 8월

주님의교회의 창립과 성장

14일에는 두 번째 번식교회로, 이호 목사가 담임하는 J주님의교회 창립예배를 올렸습니다.

교회 건물의 이전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지하 1층 세미나실

1988년 6월 26일, 주님의교회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지하1층 세미나실을 빌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에는 이재철 전도사와 53명의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논현동 YMCA 건물 2층 소망실

1988년 11월 1일,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세미나실이 좁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로 예배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주님의교회는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정신학원에 갇들다

1996년 3월 3일, 정신여고 4층 강당으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5년부터 하나님께서 1887년 개교한 정신학원과 함께 하는 비전을 주셨고, 그해 9월에는 정신학원 대강당 건축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11월에는 건축 설계에 이르고, 1997년 8월 5일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강당 김마리아홀과 중강당, 생활교육관 건축

1998년 11월 1일, 정신학원의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이 완공됨에 따라 정신학원에 기증하고, 입당예배를 올렸습니다. 2002년 2월 16일, 예배 및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 중강당과 생활교육관을 증축하기 시작하여, 12월 22일 중강당이 완공되었고, 감사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2003년 2월 9일에는 강당의 증축부분을 정신학원에 기증했습니다.

교회 사역과 행사

전교인 수련회와 무지개축제

1989년 7월 27일,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대전 중앙교회연수원에서 가졌습니다. 이후 전교인 수련회는 거의 매년 개최되어 201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5일에는 제1회 무지개축제를 열었습니다. 이후 매년 어린이날, 어린이와 성도, 이웃과 함께하는 무지개축제가 주님의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교지 <함줄함울> 창간

1996년 8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 12:15)는 말씀에 따라, 교회 내 소식지인 <함줄함울>을 창간했습니다. 1992년 4월 <나눔의 소식>이라는 제호의 소식지로 창간되었다가 11호까지 발간하고, 신문의 형식을 갖춘 선교지로 재창간한 것입니다.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친구사역

2008년 1월 5일 12단계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성경공부는 2012년 1월로 11단계까지 완료하고, 12단계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어,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3차에 걸친 성지순례로 마쳤습니다. 한편 2010년 9월 12일, 예수친구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뿌리기수로 시작한 이 깊이 있는 제자 사역은 2011년 2월 1기, 2012년 2기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새 엠블럼과 새로운 형식의 예배 드라마

2009년 6월 28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새 엠블럼을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2012년 4월 8일, 부활절을 맞아 새로운 형식의 예배드라마를 드렸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알리고, 쉽게 기독교의 진리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와 봉사

50%의 재정으로 섬기는 이웃 사랑의 실천

1988년 8월 17일, 창립 정신에 따라, 창립 준비 및 창립예배 헌금 430만원을 전남 모도 운동네교회 건축 헌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국내외 해외 선교, 북한 선교와 지원, 지역 복지 사업과 교육 지원에 헌신하면서, 지난 24년 동안 매년 50%내외의 재정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0년 1월 19일, 가락본동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6월 26일에는 대외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을 설립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 동포 지원

2002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포시 제3 결핵요양소에 12,500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했고,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유진벨 재단을 통해 북한에 각종 물품을 보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북한 결핵 어린이돕기 결연식을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와 가졌습니다. 2010년 11월과 2011년 10월에는 북한선교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방으로, 봉사와 비전 트립

2005년 1월에는 쓰나미 재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20,0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 7월, 캄보디아 우물 파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위구르 및 캄보디아 우물 파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으며, 매년 대상 국가와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 재해지역에 기름 제거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2011년 11월 12일에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 선교를 위해서 국제교육선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부르심의 확증’ _조정현 목사

부르심의 길에 서서 _07



이 글을 쓰자니 다시 신대원 입학 앞둔 사람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소명에 대해서 목회자로써의 첫 발걸음을 떼면서 ‘부르심의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누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 1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에 학생부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후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설교 중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전혀 주저함 없이 ‘그건 목사가 되는 것이겠네요’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도사님은 약간 놀라시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꼭 목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목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도 더불어 설명해 주

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를 위해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도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이 생각과 함께 저의 가슴은 너무도 뛰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러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허리 고생한 적이 없던 저는 군입대 3개월 만에 허리를 다쳐 군 대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 옆에는 대대교회가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창문 밖으로 교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나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부터 기어서 아픈 허리를 붙잡고 약간 오르막에 위치한 대대교회에 나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확실한 주의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순간 순간들이 그림처럼 기도 중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어머니께 부대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목사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라고... 이것이 저의 두 번째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까지만 해도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떠한 헌신이 뒤따르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기간 중,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학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기치도 않게 만난 저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알게하는 사인(Sign)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는 감당할 수 없는 길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통해서 짧게 보고, 좁게 보았던 삶의 시선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시점이 바로 아내를 만난 다음부터입니다. 물론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재조정된 모습들이지만 결혼생활, 1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는 주의 부르심의 한 복판에서 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도록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평생을 함께 목회할 영원한 나의 동반자..

부르심의 길에서.... 저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어봅니다. 3년간의 유학생활 그리고 부목사로 이제껏 헌신한 3개의 교회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보고 전진하며 걸어온 이 길... 다음은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혹 또 다른 헌신을 말씀하실까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또다른 calling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흔들리거나 하겠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끝 편지 _08

_반기운 학교를 통해...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반기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반기만 하고 감사를 표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교회 신문에 반기운 학교에 대해 기고한다고 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제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기운 학교에서 배우지도 어느덧 몇 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반기운 학교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장했습니다. 논술, 영어, 수학, 과학,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과목에서부터 피아노, 영어로 배운 경제 수업 등까지 양질의 수업을 받으며 지적으로 발전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과 선생님이자 멘토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을,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힘들었던 사춘기 시절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반기운 학교를 통해 가장 크게 변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 모여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모습이 처음에는 생경했지만, 점차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제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기쁨

부으심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 자신만을 바라보고 위하던 이기심과 교만에서 감사함으로,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매 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꿨던 마음들이 차츰차츰 따스한 사랑으로 열려가고, 마침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저처럼요. 저를 끊임없이 불러주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반기운 학교에서 한 뼘 한 뼘 커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기에 앞으로 더더욱 성장할, 저를 포함한 학생들의 변화될 모습이 기대됩니다.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반기운 학교, 영원하라! *특히 김영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반기운학교 배영은 학생 >

2012년 함줄함울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창립 24 주년을 맞아, 24 살 청년(88년생)에게 듣다.

교회의

참된 본질 _ 박인재

안녕하세요 저는 9살부터 주님의교회에 다니게 된 박인재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지 벌써 17년째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가고 또 많은 일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릴땐 강남 YMCA와 정신

여고 본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강당에서 예배드릴수 있게되었네요^^ 저희 집은 선교사님이셨던 고

조할아버지께서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

인 저는 찬송부르기를 좋아해서 아홉살때부터 대학부에 오기까지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하는 모든것들을 부

모님께로부터 배웠고, 따라하다 보니 그것들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있었습니

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의교회 중등부 수련회를통해 하나님을 처음

만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돌아온 뒤 세상속에서 하나

님을 계속 의심하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성령의 불타는 마음에 대해 집단행동

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감동일 것이라고 여겨버리고 세상을 원래 살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적 뜨거움의 상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전교인급 성극에서 주연을 맡기도 하고, 청년 기수별 활동도 열심히 재미있게

할 정도로 교회 '행사' 들에는 저 나름대로 열심으로 참여하였으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교회의 참된 본질은 빠져있었습니다. 예배는 매주 나왔으나 설교

는 진리로 들리지 않았고, 설교시간은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탄생각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했는데 더더욱 과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없는것 같다는 마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아침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한분과 전화로 성경을 매일 몇장씩 읽고 그 말씀에 대해 나누면서 시작되었습

니다. 그 지체는 자신이 만나본 사랑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무섭고 무반응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

나님이라 의심이 갈만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기쁜마음을 구했을때 하나님께

서는 저에게 제가 처한 상황속에서 도저히 느끼기 힘들것 같던 평안함과 기쁨

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매일 함께 읽는데 저의 축복의 통로되어준 그

지체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정말 없을 것 같고 믿을수 없었던 저였지만, 예수

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엄청많이 흘리며 비참

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서든 다른 곳에서든, 하나님은 언제고 어떤

상황에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_ 정겨울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20살까지는 학교를 다니듯이 당연하게 주일학교를

다녔다. 매주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지근했으며 뜨거운 관계

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던 나에게 청년부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청년부의 거자씨 모임을 통해 성경공부를 하고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한발 한발 디디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거자씨 리더로, 유치부 교사로, 행정팀 회계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했으며, 더 치열하게 일어서야 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때를 돌이켜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온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단련시키셨으며 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선물하셨다. 또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공동체의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강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사랑을 지닌 정말 멋진 분이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가장 열정 있고 패기 넘치는 20대. 24살의 주님의 교회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며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길.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_ 나은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점점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하나님을 명칭하게 믿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던 20대 초반, 수양회에서 들은 복음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 나의 죄인 됨을 보았고,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지를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내려놓았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 메시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이 내 삶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준비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 내지 않기, 시험공부에 마음이 급하지만 후배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 갖기, 방학에 내 계획들이 한 가득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며 사는 것은 매번 떨리면서도 재밌었다. 그 와중에 참 많은 실수와 미숙함, 연약함이 있었지만 날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주님이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다. 점차 안정감이 들고 내 살길, 내 권리만 찾게 되는 그 자리로부터 불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나이가 들며 세상의 메시지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 즉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려내어 나를 뛰어넘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것이 그저 소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경험하며 받은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겨야겠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단 하루도 하나님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때론 진부해 보였던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진실성 있게 나의 영혼을 울릴 때 포용력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내 삶에 임함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_ 최민정

언제부터 울렸는지 모르는 알람 소리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입니다. 십분 만 더 자고 싶지만, 매번 그 십 분이 한 시간이 되어왔기에 졸린 몸을 일으켜봅니다. 재빠르게 준비하고 현관문을 열자 아직은 차가운 새벽공기에 정신이 듭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낯익은 교회 모습이 보이자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네, 지금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습관처럼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싶던 때도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드림에 귀찮음을 느끼고 건성으로 짧은 기도를 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제게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온 마음을 채웠고, 제 삶의 방향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제 삶은 풍족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 그들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제게 또 다른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기쁨으로, 감사로, 때론 소망으로 숨 쉬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삶 속에 주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_ 엄성준

나와 주님의 교회와의 인연은 꽤나 오래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한 후부터 주님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십여년이 넘는 시간이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참여함으로써 세상에서 미처 성장시키지 못했던 나의 내면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기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청년기때의 선배들의 영적인 이끌어줌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 역시도 받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 주중에서 내가 가장 기대하고 큰 기쁨을 느끼는 하루가 바로 주일이다.

주일날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채워짐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날이기에 주일이 소중하고 기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주님의 교회이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널리 베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 잘 돕는 크리스천 코칭 _ 양육과정을 마치고



내가 코칭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 건 이년전 교회 양육과정을 통해서였다. 처음엔 단순히 상담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 큰 기대감 없이 시작되었지만 과정을 한번, 두 번, 거듭할수록 호기심과 설렘 속에 코칭이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질문이란 프로세스를 통해 발견하고 실행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선택 의도로 사용하게 하는 법. 그것이 코칭을 통해 가능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을 받고 실습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다른이 들을 잘 돕고 싶어 하는 나에게 코칭의 기법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실습 연습을 하면서 코칭을 하게 된 어느 여 선교사의 어렵고, 막막한 현실을 알게되고 그녀를 정말 잘 돕고 싶다는 나의 바람. 코칭시간이 늘어나면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30시간의 코칭이 끝난 후 그녀는 내게 감사의 말을 전해 왔다. 그녀의 사건 이후로 나는 자신감과 함께 나라면 정말 좋은 코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부터 자꾸만 차고 올라왔다. 그것은 더 전문적인 것을 해보고 싶다는 나의 열망이었다.

올해 2월 정요섭 목사님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원서접수를 끝내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나는 한국코치협회 KAC(Korea Associate Coach) 전문 인증 코치가 되었다. 주님의 교회 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정요섭 목사님의 1호 제자, 주님의 교회 제 1호 정식코치라는 기쁨의 호칭을 얻게 되었다. 좀더 전문적이고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 프로코치 시험준비의 과정으로 이번 양육과정을 다시 신청 하게 되었고 9명이 끝까지 남아 7명이 수료증을 받게 되었다.

코칭이란 단순한 상담과정이 아니다. 코칭의 철학윤리 말한다. 우리의 문제의 답은 우리내면에 있으며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선택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택의지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들이다.

예수는 인류 최초의 가장 멋진 코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 주었던 삶을 돕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아닐까 싶다. 내가 코치했던 여 선교사의 말을 빌어 코칭의 힘이 어떤지를 말한다면 “뽕뽕한 풍선에 바늘을 갖다 댔으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날텐데 코칭을 통하여 풍선의 바람이 순조롭게 빠져 제 모습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코칭의 힘은 놀랍다. 바라건대 많은 주님의 교우들이 코칭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잘 돕고 아울러 제 2호 3호.. 주님의 교회 전문 코치가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_ 한상숙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길 하나님”

〈오늘 임직 받는 5분의 피택장로의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길 하나님 _ 지유철

2012년 4월 기다리던 성지순례를 다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곳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시고 우리가 왜 그 곳을 다녀와야 하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것을 보았고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의 지각 속에 하나님을 묶으려 하였습니다. 전환이 필요한 때에 순례 여정은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지! 우리의 순례여정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순례자들이 차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시간은 짧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묘 기념교회에서 갖은 기도에서 주님은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은 세상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 것이다! 오직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또한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은 나와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거자씨로 주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있을 내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땅 끝까지 전하고 행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려 하심인 줄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_ 손천숙

‘오늘 무슨 요일이지?’ 막내를 낳고 얻은 산후기간, 요일에 별 관심 없이 한 달가량 침을 누리고 있던 1981년 2월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일요일이구나, 교회에 한번 가 볼까?’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와, 문고 물어 겨우 찾은 교회. 그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꼬옥 붙드셨고 난 예수님을 붙잡았다. 몇 년 동안은 예배드림이 너무 좋아서 주일, 새벽, 수요, 금요철야, 성경공부 등 어떤 예배에도 빠질 수가 없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 산 같은 신뢰로 의지하고, 바다 같은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를 22살에 여인 후, 1981년 2월 마지막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산 같은 하나님, 바다 같은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با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예배 때마다 울고 또 울기를 몇 년,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슴을 때리며 파고드는 주

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 깊게 묵상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는 지금도 나의 일 순위 기도제목이다.

1990년, 주님께서 주님의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명, 십자가의 아픔에 감동하며 의지하고 믿는 나에게, 3년 전 주일에배에서, 하나님께서 초대형 십자가를 보여 주심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셨다.

2012년 6월 24일, 주님의교회 스물네 번째 창립기념일에 장로 임직을 받는다. 떨리고 무겁고 두렵다.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그러기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무릎 꿇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혼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역사와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게 하시며,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참다운 헌신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이끄신 사역에 겸손히 충성하게 하소서. 나의 아با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섬길 하나님 _ 김유호

주님의 교회의 일원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장해 온 교회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이래 여러 목사님의 다양한 목회철학과 신앙훈련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여러 면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인가 신앙생활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균형잡힌 섬김일꾼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초대형교회가 된 우리의 공동체는 쉽게 적응하기 힘든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격동기에 살고 있기에 평신도나 목회자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보다는 혼란을, 해결되기 보다는 실마리부터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형적 성장보다는 속이 꽉 찬 알곡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이런 현실속에서 마땅히 들려야 할 양심의 소리인 듯 합니다. 이런 때에 장로로 소임을 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기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효율적인 일처리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질 것인가. 공동체안의 모든 성도가 섬김의 대상임을 매일 새롭게 되새기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가. 공동체안의 평화를 깨는가 만드는가. 차리의 직분에 얽매어 사랑의 하나님을 잊고 사는가.

10년 후 장로직을 마치는 때에 신앙이 성장한 성도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이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년 전 어느 날의 고백 _ 동현수

1993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가을에, 어느 수련회에서 제 인생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직후였습니다. 수련회 내내 인자한 모습으로 묵묵히 봉사 하시던 어느 장로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마지막 간증 시간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20년 후에 저희그룹에서 사장이 되는 것 보다 제 소속교회에서 장로가 되는게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제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최근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나 심지어 기독교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많은 논란이 있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된 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93년 은혜의 시간 이후 20년이 흘러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성숙함이 있었고, 그 성숙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기에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몇 번씩 다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또 간구했던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기도와 헌신으로 장로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_ 김학원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과 주님의교회의 교우들로부터 피택받아 장로로 임직됨을 떨리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교회와 교우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큰 누이 손에 이끌려 교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큰 굴곡 없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확신하고, 생애의 모두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탁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종종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주님의교회가 창립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장로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지는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며 교우들과 교감하며, 겸손히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겠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는 주님의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모두 함께 자축합니다.

2012년 주님의교회 임직자

— 장로 —



지유철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김학원

<5명>

— 권사 —



김혜숙



조혜조



김라마



남택숙



박서경



최정숙



이덕례



김분자



박향숙



김용숙



문유숙



김미혜



한경임



방순희



김경미



김미자



임연옥



박경숙



송용미



성순현

<20명>

— 안수집사 —



원재환



전석식



신현재



이한성



김봉곤



최종현



김진수



권성호



여인묵



최병욱



정상철



서정하



태재승



이흥모



김중호



김유석



최호성



박석진

<18명>